

2027학년도 비욘드 모의평가 1회

영어 영역

정답 및 해설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13			25	⑤	2	37	④	3
2			14			26	⑤	2	38	④	2
3			15			27	③	2	39	④	3
4			16			28	④	2	40	①	3
5			17			29	⑤	3	41	②	2
6			18	④	2	30	④	2	42	③	2
7			19	②	2	31	③	2	43	④	2
8			20	①	2	32	②	2	44	⑤	2
9			21	②	2	33	②	3	45	⑤	2
10			22	③	2	34	①	3			
11			23	②	3	35	③	2			
12			24	③	2	36	⑤	2			

18

정답 ④

해석

전 직원 여러분께,

시설 관리자로서, 회사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글을 드립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직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공간을 항상 공평하게 배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통근자나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통근 거리, 신체적 필요, 그리고 직무를 기준으로 우선 배정될 것입니다. 최종 주차 배정 명단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30일까지 HR 포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James Whitfield 드림

해설

시설 관리자가 “a new parking policy will begin soon”, “Parking spaces will be given first to employees based on commuting distance, physical needs, and job duties” 등을 통해 현재 주차 공간 운영의 개선 필요성과 새로운 운영 정책의 기준 등을 알리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어휘

facility 시설 parking lots 주차장
policy 정책 commute 통근하다
HR 인사팀 (Human Resources) cooperation 협조

19

정답 ②

해석

Lucas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는 고대 문명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보기 위해 시립 박물관에 일찍 도착했다. 입구에서 황금 의식용 마스크 포스터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보러 온 작품이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팜플렛을 집어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전시실 벽을 따라 동전, 도기, 조각품이 가득 담긴 유리 진열장이 늘어서 있었다. 그는 전시물에서 전시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러고는 중앙 홀(hall)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작은 안내문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전시는 작은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람이 중단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마스크가 있었어야 할 자리의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팜플렛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해설

Lucas가 황금 의식용 마스크를 보기 위해 기대감을 지닌 채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던 중, 중앙 홀에서 해당 전시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안내문을 발견하고 텅 빈 공간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있으므로, Lucas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흥분한 → 실망한’이다.

어휘

exhibition 전시회 civilization 문명
ceremonial 의식용의 pottery 도기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incident 사고, 사건 empty 텅 빈
sigh 한숨; 한숨을 내쉬다

20

정답 ①

해석

도시 계획에서 인간 척도, 즉 인간의 신체 치수, 감각, 이동성에 부합하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오랫동안 부차적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 쇼핑센터, 놀이공원, 레스토랑은 그 가치를 입증한다. 공간이 인간의 신체에 맞게 조성될 때,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자주 다시 찾는다. 그러나 더 넓은 도시 환경은 이 교훈을 좀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계획가들은 더 넓은 공간이 더 큰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가정 아래 공간적 규모를 키운다. 실제로는 지나치게 큰 공간이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고, 도시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인간의 신체는 어떠한 정책이나 기술로도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치수를 지니고 있

으며, 따라서 적응의 부담을 저야 하는 것은 도시다. 규모에 관한 결정은 도시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려져서는 안 된다.

해설

[논증 구조]

인간 척도: 도시 계획에서 부차적 → 인간 척도의 가치가 입증됐으나 도시 환경에 미적용 [문제 제기] → 과도한 공간 확장: 보행·자전거 이용 저해, 도시의 비인간화 → 신체 치수는 고정, 적응해야 하는 것은 도시 [주장] → 도시 환경의 실제 경험 방식 반드시 고려 [결론]

[정답 논리]

쇼핑센터·놀이공원·레스토랑은 공간이 인간의 신체에 맞게 조성될 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자주 다시 찾는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도시는 이 교훈을 적용하지 않고 공간을 과도하게 확장해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신체 치수는 고정된 것이므로 적응의 부담을 저야 하는 것은 도시이며, 규모에 관한 결정은 도시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 논리]

- ② 신체적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 지문은 어떠한 정책이나 기술로도 신체 치수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 논지와 정반대.
- ③ 공간 규모를 키워 편의성 제공: 지문이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계획가들의 잘못된 가정을 그대로 반복한 선지.
- ④ 이동 방식의 다양화: 보행·자전거 이용 저해는 지문에 등장하지만, 지문의 논지는 이동 방식의 다양화가 아니라 인간 척도에 맞는 공간 설계.
- ⑤ 공간 규모보다 심미적 요소 중시: 심미적 요소는 지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

어휘

urban 도시의	scale 척도, 규모
dimension 치수, 크기, 차원	treat 여기다, 다루다
secondary 부차적인, 제2의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match 부합하다, 맞추다	rarely 좀처럼 ~하지 않는
apply 적용하다	expand 확장되다

21

정답 ②

해석

뇌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조직 덩어리에 의해 어떤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기관이 결코 아니다. 특정한 3차원 형태를 지녀야만 하는 슬개골과 달리, 뇌는 정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시스템이 공간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연산 기관이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들은 탑재될 때 메모리의 서로 다른 부분에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메모리의 멀리 떨어진 영역들에 걸쳐 조각조각 흩어질 수도 있다. 그 영역들이 적절히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 물론 뇌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지만, 그것은 이 논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 줄 뿐이다. 뇌의 회로들은 주회로 기관의 슬롯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적합한 자리를 찾아간다. 정신적 과정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신경망의 수백만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산이다. 뉴런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신경망은 뇌 표면 위에 온갖 종류의 줄무늬나 점 모양으로 뒤틀려 있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논증 구조]

뇌: 형태가 아닌 정보 흐름의 기관 [주장] → 컴퓨터 프로그램: 연결만 되면 어디서든 완벽하게 작동 → 뇌 ≠ 디지털 컴퓨터, 그러나 논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 → 뇌 회로: 적합한 자리를 찾아감(함축의미) [재진술] → 뉴런: 연결만 유지되면 어떤 형태로도 동일한 기능 수행 가능 [결론]

[정답 논리]

뇌는 정보 흐름에 관심을 가지는 연산 기관으로, 슬개골처럼 특정 형태를 가져야 하는 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메모리의 서로 다른 영역에 흩어져 있더라도 연결만 되면 완벽하게 작동하듯, 뇌 회로 역시 마더보드의 슬롯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뉴런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어떤 형태로 뒤틀려 있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함축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연결이 유지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작동한다’이다.

[오답 논리]

- ① 기저의 물리적 구조에 맞게 스스로를 정렬한다: 지문은 공간 배치가 아닌 정보 흐름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 ③ 특정 기능을 위해 지정된 영역에서 활성화된다: 뇌 회로는 고정된 슬롯이 아니라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자리를 찾아간다고 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 ④ 조율 없이 여러 위치에 걸쳐 퍼진다: 지문은 영역들이 적절히 연결되는 것을 기능의 전제로 제시했으므로, 조율 없는 분산은 논지와 무관.
- ⑤ 고정된 패턴으로 조직화된다: 뉴런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어휘

organ 기관	carry out 수행하다
chunk 덩어리	tissue 조직
recognizable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computation 연산, 계산
take up 차지하다	end up 자리 잡다, 결국 ~하게 되다
fragment (조각조각) 흩어지게 하다	far-flung 멀리 떨어진
as long as ~하기만 한다면	makes the point 논점을 뒷받침하다
circuit 회로	plug 끼우다
slot 슬롯, 가느다란 구멍	motherboard 주회로 기관
synapse 시냅스	intricately 정교하게, 복잡하게
structure 구조화하다	stripe 줄무늬
coordination 조율, 조정	reserve 지정하다, 저장하다
sustain 유지하다	align 정렬하다
underlying 기저에 있는	layout 구조, 배치

22

정답 ③

해석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정당성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은 권한 부여(authorization)와 책무(accountability)이다. 이 두 원칙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통해, 선출직 정치인, 관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중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정치 공동체에 책임을 진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제도적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알고리즘은 대개 어느 쪽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 알고리즘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내재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결과물에 기대되는 정당성이라는 이점을 누린다. 알고리즘은 권한 부여의 검증이나,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핵심에 놓여 있는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심층적인 집단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다양한 형태의 공적 결과를 수반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도입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 그 정당화를 위한 명확한 절차 없이는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의 기준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설

[논증 구조]

민주주의 정당성의 두 기둥: 권한 부여·책무 → 알고리즘: 두 메커니즘 모두 부재 [문제 제기] → 알고리즘: 민주적 부담 없이 정당성의 이점만 누림 [주장] → 권한 부여·통제 절차 없이 심층적 집단적 결과 생산 [재진술] → 알고리즘 도입: 민주주의적 원칙·가치 기준 충족 불가 [결론]

[정답 논리]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인 권한 부여와 책무는 선출직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적용되지만, 알고리즘은 이 두 메커니즘 모두를 갖추고 있지 않다. 알고리즘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내재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정당성의 이점만 누리며, 권한 부여의 검증이나 통제 절차 없이 심층적인 집단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알고리즘이 공적 결과를 수반함에도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 지적이므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 논리]

- ① 공적 결과의 유용성을 통한 민주적 권한의 사후 확보: 지문은 알고리즘이 권한 부여의 검증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 ②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민주적 절차의 부담을 완화: 지문은 알고리즘이 민주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그것이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논지와 무관.
- ④ 알고리즘 성과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기준의 재조정: 정당성 기준의 재조정은 지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

⑤ 정치 공동체의 직접 통제로 알고리즘의 영향력 강화: 지문은 알고리즘이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논지와 정반대.

어휘

pillar 기둥	legitimation 정당성
democracy 민주주의	combination 결합
principle 원칙	elected 선출직의, 선출된
bureaucrat 관료	justice 재판관; 정의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contemporary 오늘날의, 현대의	institutional 제도적인
burden 부담	inherent 내재된
consequence 결과	pass through ~을 거치다
significant 중요한	adoption 도입
satisfy 충족시키다	criterion 기준
procedure 절차	justification 정당화

23

정답 ②

해석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은 숫자가 누리는 특별한 지위에서 비롯된다. 과학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숫자가 객관성의 궁극적 검증이라고 선언한다. 사회적 선호에서 나오는 어떠한 간섭 없이 뇌의 무게를 달거나 지능 검사의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만약 엄격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얻어진 확고한 수치로 순위가 표시된다면, 설령 그것들이 처음부터 믿고 싶었던 것을 확인해 줄 뿐일지라도, 그 수치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론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들은 숫자가 가진 특유의 권위와 그 반박이 수반하는 각별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열등함을 전체로 수집된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저명한 사상가들을 인용하고 그들 자신의 업적을 가리켰을 때, 그들은 그 수치들에 맞서기에는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숫자들은 보통의 논증으로는 좀처럼 맞서기 어려운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들에 맞서 어떠한 논리가 제기되든 간에, 그러한 수치들은 그것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뒤이어 내려지는 사회적 판단은 노골적인 적대감보다 더 해로울 수 있었다.

해설

[논증 구조]

정량적 데이터 의존 → 숫자: 객관성의 궁극적 검증으로 여겨짐 → 결정론적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는 숫자의 권위 앞에 무력 [문제 제기] → 숫자: 보통의 논증으로 맞서기 어려운 권위 보유 [주장] → 어떤 논리가 제기되든 수치는 그 논리를 압도 [결론]

[정답 논리]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은 숫자가 누리는 특별한 지위에서 비롯되며, 숫자는 사회적 선호의 간섭 없이 객관성을 검증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객관성의 검증으로 여겨진다. 특정 집단이 저명한 사상가와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워 결정론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수치들이 지닌 권위 앞에 무력했다. 어떤 논리가 제기되든 수치는 그것을 압도했고, 뒤이은 사회적 판단은 노골적인 적대감보다 더 해로울 수 있었다. 이처럼 숫자가 객관적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권위가 사회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 지적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가정된 중립성에 기반한 숫자의 영향력’이다.

[오답 논리]

- ① 열등함에 대한 수치적 주장을 수용하는 집단: 지문에서 특정 집단은 수치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력했을 뿐, 수용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음.
- ③ 수적 지배에 맞서는 집단적 논리: 지문은 어떤 논리가 제기되든 수치가 그것을 압도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집단적 논리가 수적 지배에 맞선다는 선지는 논지와 정반대.
- ④ 사회적 논쟁을 조장하는 숫자의 분열적 본성: 지문은 숫자의 권위가 논증을 압도한다고 했을 뿐, 숫자가 사회적 논쟁을 조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음.
- ⑤ 특정 집단에 대한 통계적 판단의 타당성: 지문은 통계적 판단의 타당성이 아니라 중립적이라고 가정된 숫자가 부당한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을 비판하므로 논지와 무관.

어휘

reliance 의존	quantitative 정량적인
-------------	-------------------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	status 지위
mystique 신비로운 분위기	proclaim 선언하다
ultimate 궁극적인	objectivity 객관성
interference 간섭	preference 선호, 편견
rigorous 엄격한	standardized 표준화된
procedure 절차	reflect 반영하다
confirm 확인해 주다	determinist 결정론적인
prestige 권위	refutation 반박
entail 수반하다	invoke 인용하다
prominent 저명한	contest 이의를 제기하다
compile 수집하다	inferiority 열등함
figure 수치	authority 권위
argument 논증	reasoning 논리
bring against ~에 맞서 제기하다	overwhelm 압도하다
hostility 적대감	acceptance 수용
disruptive 분열적인	dispute 논쟁
dominance 지배	neutrality 중립성
validity 타당성	statistical 통계적인

24

정답 ③

해설

정복자들 사이에서 옥수수가 총애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멸종의 위기에 처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매년 봄에 그것을 심어줄 인간이 없다면 옥수수는 불과 몇 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옥수수를 우리에게 그토록 먹기 편한 곡물로 만들어 주는 그 독특한 ‘옥수수 대와 껍데기 배치’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씨앗을 분리하며 그것들을 심는 데 필요한 마주 보는 엄지손가락을 보유한 동물에게 그 식물이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옥수수 대 전체를 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만약 알갱이 중 어느 하나라도 용케 발아하고 숨 막히게 하는 껍데기에서 빠져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두 번째 잎이 나오기도 전에 예외 없이 과밀하게 밀집하여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재배 식물보다 더, 옥수수는 특유의 껍데기에 싸인 이삭을 진화시켰을 때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완전히 맡겼다. 몇몇 인간 사회는 옥수수를 숭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왔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옥수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우발적 존재이다. 지금까지 이 역전은 놀랍도록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옥수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했다.

해설

[논증 구조]

옥수수: 인간 없이 멸종 → 껍데기 구조상 엄지손가락 가진 동물 없이 번식 불가 → 옥수수의 진화는 인간에게 운명을 완전히 맡김 [주장] → 옥수수의 입장에서 인간은 우발적 존재 → 그로 인한 옥수수의 전 세계 확산 [결론]

[정답 논리]

옥수수는 껍데기 구조상 엄지손가락을 가진 동물 없이는 번식할 수 없는데, 옥수수 대 전체를 심으면 알갱이들이 과밀로 죽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옥수수는 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완전히 내맡겼는데, 일부 인간 사회가 옥수수를 숭배하지만 옥수수의 입장에서 인간은 오히려 생존을 가능하게 한 우발적 존재이며 이 관계가 옥수수의 전 세계 확산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옥수수의 진화적 도박: 성공 이면의 의존’이다.

[오답 논리]

- ① 자연의 씨앗 운반자로서 옥수수 대가 실패하는 이유 → 옥수수 대를 심으면 알갱이들이 과밀로 죽는다는 내용은 지문에 있으나, 인간 의존성을 뒷받침하는 예시일 뿐 논지가 아님.
- ② 인간 친화적 형태: 의도적 설계 → 옥수수의 형태는 의도적 설계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인간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결과이므로 논지와 정반대.
- ④ 인간의 발명품으로서 옥수수의 농업적 효율성 → 옥수수가 먹기에 편한 곡물이라는 내용은 지문에 있으나, 지문의 핵심은 농업적 효율성이 아니라 그 구조로 인한 인간 의존성이며, 옥수수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한 결과이므로 논지와 무관.
- ⑤ 신성한 옥수수와 농경 사회의 믿음 → 옥수수 숭배는 인간이 옥수수에 우발적 존재라는 역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재일 뿐 논지가 아님.

어휘

maize 옥수수	favor 총애, 호의
conqueror 정복자	extinction 멸종
arrangement 배치, 배열	convenient 편리한
grain 곡물	render ~하게 만들다, 주다
possession 보유, 소유	opposable 마주 보는
remove 벗겨내다, 제거하다	separate 분리하다
germinate 발아하다	work one's way 나아가다
smothering 숨 막히게 하는	invariably 예외 없이, 변함없이
crowd 과밀하게 하다	domesticated 재배되는, 길들여진
throw one's lot in with ~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다	
peculiar 특유의, 이상한	ear 이삭, 귀
see fit to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다	
worship 숭배하다; 숭배	reversal 역전
remarkably 놀랍도록	intentional 의도적인
sacred 신성한	efficiency 효율성
gamble 도박, 모험	reliance 의존

25

정답 ⑤

해석

위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격으로 미국의 전기 발전 용량 신규 추가분의 출처를 보여준다. ① 태양광 발전은 주어진 기간 내내 신규 발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②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천연가스 비중의 감소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감소보다 작았다. ③ 풍력 발전은 주어진 세 연도 모두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신규 발전 용량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④ 네 가지 에너지원 중 '기타' 항목은 2005년에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5년에 처음 등장했다. ⑤ 2025년의 두 번째로 작은 비중은 2015년에 기록된 두 번째로 작은 비중보다 낮았다.

해설

2025년의 두 번째로 작은 비중은 Solar의 17%이고, 2015년의 두 번째로 작은 비중은 Others의 16%이다. 17%는 16%보다 낮지 않으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source 출처, 근원	addition 신규 추가분, 추가
electricity 전기	capacity 용량
interval 간격	steady 꾸준한
increase 증가	share 비중, 몫
period 기간	category 항목, 범주
absent 나타나지 않은, 없는	

26

정답 ⑤

해석

Frida Kahlo는 1907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독일 이민자 출신 사진작가였고 어머니는 스페인과 멕시코 원주민이 섞인 혈통이었다. 여섯 살 때 그녀는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더 가늘고 짧아졌다. 열여덟 살에는 버스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 침대에서 지내면서 그녀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 첫 번째 자화상을 완성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녀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1938년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듬해 루브르 박물관이 그녀의 작품 중 하나를 구매하여, 그녀를 루브르 컬렉션에 작품이 포함된 최초의 멕시코 화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첫 개인전은 1953년이 되어서야 열렸다. 그녀는 참석하지 말라는 의사의 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안에 마련된 침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듬해 세상을 떠났으며, 생생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화풍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해설

Frida Kahlo는 모국에서의 첫 개인전에 참석하지 말라는 의사의 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안에 마련된 침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했으므로, 의사의 권고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⑤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immigrant 이민자의	descent 혈통, 가문
contract (병을) 앓다, 계약하다	
self-portrait 자화상	recognition 명성, 인정
exhibition 개인전, 전시회	celebrate 높이 평가하다, 축하하다
vivid 생생한	style 화풍, 스타일

27

정답 ③

해석

Hillcrest 고등학교 졸업반 사진 전시회

졸업하는 저희 사진반을 축하해 주세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재능 있는 젊은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일시: 5월 22일 ~ 5월 30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장소: Hillcrest 지역 예술 센터, 갤러리 홀

입장료: 모든 관람객 무료

주요 내용

- 졸업반 학생 24명의 사진 작품 80점 전시.
- 작가와의 대화: 5월 24일 및 5월 28일 오후 3시.
- 관객 선정상 투표는 마지막 날 정오에 종료됩니다.

유의 사항

- 방문객은 로비에 있는 포토월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입장 시 모바일 기기를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www.hillcrestarts.edu를 방문해 주세요.

※ 인쇄된 카탈로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

관객상 투표는 전시 마지막 날 정오에 종료된다고 했으므로, 마지막 날 정오에 시작된다는 ③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senior 졸업반의	exhibition 전시회
feature 특징으로 삼다, 보여주다	admission 입장, 입장료
highlight 주요 내용	display 전시
vote 투표하다	notice 유의 사항
silence 무음으로 하다, 침묵시키다	device 기기, 장치
detail 세부 사항	available 구매 가능한, 이용 가능한
purchase 구매	

28

정답 ④

해석

2026 글로벌 마인즈 국제 토론 캠프

비판적 사고력과 말하기 실력을 갈고닦을 준비가 되셨나요? 잊지 못할 토론 경험에 참여하세요!

일시: 8월 3일 ~ 8월 7일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Westview 국제학교 컨퍼런스 센터

대상: 중·고등학생

참가비: 참가자당 350달러 (식사 포함)

- 조기 등록 할인 - 7월 10일까지 등록 시 300달러.

활동 시간

- 전문 코치들의 피드백이 제공되는 매일의 토론 활동
- 마지막 날 모의 유엔(UN) 시뮬레이션

규정

- 모든 세션은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 참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동안 캠퍼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등록은 www.globalmindscamp.org에서 하세요.

※ 모든 참가자에게 수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해설

프로그램 운영 시간 동안 참가자는 캠퍼스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으므로,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어휘

sharpen 갈고닦다, 날카롭게 하다	critical 비판적인
-----------------------	---------------

experience 경험
register 등록하다
expert 전문적인, 전문가의
certificate 수료증, 증서

conference 회의
session 활동(수업) 시간, 기간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의 연습
issue 발급하다, 발행하다

29

정답 ⑤

해석

고대 세계의 어떤 철학자도 무지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 소크라테스만큼 깊이 있는 통찰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모든 이들의 신념과 사고를 검토하여, 자신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무지를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이 진정한 지식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무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 절망이 아니라 지적 겸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소크라테스야말로, 무지의 단순한 수용과 지식의 적극적인 추구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은 인물이었다. 소크라테스에게 무지의 발견은 철학적 과업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는데, 오직 그러한 발견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리고 있던 기존의 가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납득시키는 것을 자신의 개인적 사명으로 여겼는데,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해답은 그들이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거짓된 확신들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해설

[어법 부적절]

⑤: 'with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분사)' 구문으로, 목적어인 the answer는 묻혀 있는 수동적 대상이므로 목적격 보어의 자리에 과거분사 buried가 와야 한다. 현재분사 burying은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행위를 할 때 쓰이므로 부적절하다. 언제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마치 주어와 서술어 같은 관계를 지닌다.

[어법 적절]

①: 'as + 형용사 + a(n) + 명사' 구문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profound가 insight의 앞에 온 것은 적절하다. so와 how도 이와 같은 어순을 가지며, such와 what은 'such(what) + a(n) + 형용사 + 명사'의 어순을 가진다.

②: 동사 considered의 내용상 주어는 all those이고 목적어 themselves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온 것은 적절하다.

③: 선행사인 Socrates가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인 repeated demonstrations를 소유격으로 받고 있다. 즉 누구의 repeated demonstrations 인가의 측면에서 Socrates의 repeated demonstrations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온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만약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오지 않으면 repeated demonstrations는 모든 사람이 한 것이 된다.

④: 'only + 부사(구/절)'가 절의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는 구문으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도치 후 진짜 주어는 복수 명사인 people이므로 복수 동사 were가 온 것은 적절하다.

어휘

profound 깊이 있는, 심오한
ignorance 무지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unattainable 도달할 수 없는
intend 의도하다
humility 겸손
acceptance 수용
overcome 극복하다
obscure 가리다, 모호하게 하다
mission 사명, 임무
bury 묻다, 매장하다

insight 통찰, 통찰력
conclude 결론에 이르다
genuine 진정한
demonstration 드러냄, 입증
elicit 이끌어내다
despair 절망
pursuit 추구
assumption 가정, 추정
conceive 여기다, 품다
convince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30

정답 ④

해석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고 일컬어지곤 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

실은 역사가가 그것을 불러낼 때만 말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와 맥락으로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이다. 우리가 1066년에 Hastings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Caesar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을 자신만의 이유로 역사적 사실로 결정한 것이 역사가인 반면, 그 전후로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당신이 반 시간 전에 걸어서, 자전거로, 혹은 자동차로 직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Caesar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만큼이나 과거에 관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역사가들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이다. 역사가의 해석을 통합하는(→ 배제하는) 단단한 역사적 사실의 핵심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터무니없는 오류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오류이기도 하다.

해설

역사가는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지, 순서와 맥락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했다. 즉 역사적 사실의 선별과 배치는 이미 역사가의 해석의 산물이다. 따라서 해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란 있을 수 없다. 필자는 이와 반대되는 믿음을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단언하며, 근절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④의 자리에 incorporate(통합하다)가 들어가면 역사가의 해석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오류로 만들어 필자의 논지를 정반대로 뒤집으므로, exclude(배제하다) 등의 어휘로 바뀌어야 한다.

어휘

context 맥락
crossing 건널, 횡단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반드시
core 핵심
interpretation 해석
fallacy 오류

regard 간주하다, 여기다
negligible 무시해도 될 만한
ignore 무시하다
selective 선택적인
incorporate 통합하다
ridiculous 터무니없는
eradicate 근절하다, 뿌리뽑다

31

정답 ③

해석

광고에서 히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광고업체가 청년 반항의 이미지와 싸우는 대신 오히려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매우 효과적인 초기 전략은 소비지상주의와 광고 자체를 비판하는 광고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반항이 상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상품은 반항처럼 보이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젊고 반항적이라는 것을 멋진 외양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이라는 것은 힙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업의 리더들은 반란의 언어를 반역자들이 대체하고자 했던 바로 그 체제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 한때 진정한 희생과 사회적 위험을 요구했던 것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으로 재포장되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매한 것이 진정한 비순응의 경험을 겪지 않고도 자신들을 혁명가로 변모시켜 준다고 믿게 했다. 그들은 결코 체제에 진정으로 도전하는 사회적 대가를 치른 적이 없었다.

해설

[논증 구조]

광고업체: 청년 반항 이미지를 전면 수용 → 소비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광고 스타일 개발 → 반항=멋진 외양, 반체제=유행하는 옷 → 반란의 언어가 체제의 도구로 전환 [주장] → 진정한 희생·위험이 라이프스타일 선택으로 재포장 [재진술] → 소비자: 진정한 비순응(빈칸)의 경험 없이 구매만으로 혁명가가 된다고 믿음 [결론]

[정답 논리]

광고업체가 히피의 이미지를 전면 수용해 젊고 반항적이라는 것을 멋진 외양으로, 반체제적이라는 것을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으로 재정의하면서, 한때 진정한 희생과 사회적 위험을 요구했던 저항은 라이프스타일 선택으로 재포장되었고 반란의 언어는 체제의 도구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 혁명가로 변모한다고 믿게 되었지만,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체제에 진정으로 도전하는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들은 그 대가를 단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었다.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체제의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③ '비순응'이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① 연대: 지문은 소비자 개개인이 구매를 통해 혁명가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을 다루므로, 집단적 연대는 지문 미언급.
- ② 소외: 지문은 저항이 라이프스타일 선택으로 재포장된 것을 다루므로, 체제로부터의 분리나 단절을 의미하는 소외는 지문 미언급.
- ④ 개성: 소비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체제를 거부하는 행동이지, 외양의 차별화가 아님.
- ⑤ 좌절: 소비자는 체제에 도전하는 행동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그 행동이 존재할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인 좌절은 애초에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어휘

advertisement 광고	rebellion 반항, 반란
embrace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outright 전면적으로, 완전히
criticize 비판하다	consumerism 소비지상주의
anti-establishment 반체제적인	corporate 기업의
instrument 도구	replace 대체하다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genuine 진정한
sacrifice 희생; 희생하다	repackage 재포장하다
transform 변모시키다, 바꾸다	revolutionary 혁명가; 혁명의
undergo 겪다, 경험하다	solidarity 연대
alienation 소외	frustration 좌절
individuality 개성	

32

정답 ②

해석

관광객에 대한 현대의 비판은 관광 문제에 대한 분석적 성찰이 아니다. 관광객에 대한 현대의 비판 그 자체가 문제의 일부다. 관광객은 다른 민족과 다른 장소에 대한 피상적인 경험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한 교양 있는 응답자는 자신과 아내가 빈터투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매우 긴장했는데, 그들이 다양한 골동품 양식의 적절한 명칭을 모두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침묵이 무지를 드러낼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관광객으로서의 수치심은 관광객이라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광객답지 못하다는 것, 즉 사물을 보도록 의도된 대로 보는 데 실패한 것에 기반한다. 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비판은 다른 ‘단순한’ 관광객들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려는 욕망에 기반하며, 그것은 결코 지적인 진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관광객은 어느 정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러한 더 깊은 관여를 갈망하며, 그것은 그들이 가진 여행 동기의 기본적 구성 요소이다.

해설

[논증 구조]

관광객 비판 자체가 문제의 일부 → 응답자 부부: 골동품 양식 명칭 몰라 긴장 [예시] →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함 [주제] → 수치심: 사물을 의도된 대로 보는 데(빈칸) 실패한 것 [재진술] → 더 깊은 관여는 여행 동기의 기본 요소 [결론]

[정답 논리]

관광객은 피상적인 경험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데, 교양 있는 응답자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 그 피상성의 본질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다. 관광객으로서의 수치심은 충분히 관광객답지 못하다는 것에 기반하며, 이는 ‘단순한’ 관광객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려는 욕망과 연결된다. 따라서 빈칸에는 관광객으로서의 수치심의 본질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직접 대응하는 ② ‘사물을 보도록 의도된 대로 보다’가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① 세련된 취향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다: 지문은 정보의 부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직접 부정하므로, 지식의 과시는 수치심의 원인과 무관함.
- ③ 낮은 관습의 가치를 인식하다: 지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방향임.
- ④ 관광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다: 지문은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외부 지향적 관여를 다루므로, 내부 지향적인 개인적 성장과 무관함.
- ⑤ 훼손되지 않은 현지 생활의 흔적을 발견하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여라는 맥락과 일부 연결되어 보이나, 지문은 현지 생활의 발견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논지와 무관함.

어휘

critique 비판	analytical 분석적인
-------------	-----------------

reflection 성찰; 반사
superficial 피상적인
antique 골동품
ignorance 무지
profound 깊은, 심오한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component 구성 요소
refined 교양 있는, 정제된
sightseeing 관광, 유람
unspoiled 훼손되지 않은

satisfy 만족시키다
respondent 응답자
betray 드러내다, 배반하다
lack 부족하다
appreciation 이해, 감상
involvement 관여
motivation 동기
seek 추구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33

정답 ②

해설

유방암, 폐암, 간암과 같은 흔한 암들조차 눈에 띄게 부재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면, 의학사의 방대한 기간에 암에 관한 책이나 신(god)은 없다. 이러한 부재의 이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암은 연령과 관련된 질병으로, 때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하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암에 걸릴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했다. 남녀 모두 결핵, 천연두, 폐렴으로 오랫동안 잠식되었다. 암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질병들의 바다 아래 잠겨 있었다. 실제로 세상에서 암의 등장은 이중 부정의 산물이다. 즉, 암은 다른 모든 사망 원인들 자체가 제거되었을 때만 비로소 흔해진다. 19세기 의사들은 흔히 암을 문명과 연결 지었는데, 그들이 상상하기에 암은 현대 생활의 분주함과 소용돌이로 인해 유발되었다. 그 연결은 옳았지만, 인과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문명이 암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문명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암을 드러냈다.

해설

[논증 구조]

의학사에서 암의 부재 → 암은 연령 관련 질병인데 고대인은 수명 짧음 → 암이 존재했다라도 다른 질병들 아래 잠겨 있었음 → 암의 등장은 이중 부정의 산물: 다른 사망 원인들이 제거될 때만 흔해짐 [주제] → 암과 문명의 인과관계 재정의 → 문명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암을 드러냄(빈칸) [결론]

[정답 논리]

암은 의학사에서 오랫동안 부재했는데, 고대인들이 다른 치명적 질병들로 인해 연령 관련 질병인 암에 걸릴 만큼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세상에서 암의 등장은 이중 부정의 산물로, 다른 치명적 질병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흔해졌다. 19세기 의사들은 암을 문명과 연결 지었는데, 그 연결은 옳았지만, 인과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문명이 암을 직접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치명적 질병들을 제거한 것이 문명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인간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암을 드러내다’가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① 현대 생활 방식의 압박을 암의 원인으로 돌렸다: 19세기 의사들이 암을 현대 생활과 연결 지었다는 맥락에서 도출된 선지이나, 지문은 그 인과관계가 틀렸다고 직접 부정.
- ③ 암의 유병률을 다른 치명적 질병들 뒤에 감췄다: 암이 다른 질병들의 바다 아래 잠겨 있었다는 맥락과 연결되어 보이나, 지문의 논지는 문명이 암을 감춘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
- ④ 과학이 연령 관련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꿨다: 암이 연령 관련 질병이라는 맥락에서 도출된 선지이나, 지문은 과학적 이해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과 암의 인과관계를 다룸.
- ⑤ 의학의 발전을 통해 암의 발병을 늦췄다: 지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방향.

어휘

conspicuously 눈에 띄게	exception 예외
stretch 기간; 늘어나다	absence 부재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consume 잠식하다, 소비하다
smallpox 천연두	pneumonia 폐렴
submerge 잠그다	emergence 등장
double negative 이중 부정	civilization 문명
whirl 소용돌이	causality 인과관계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unveil 드러내다	prolong 연장하다

prevalence 유행률, 만연

34

정답 ①

해석

문법은 자아의 두 가지 양식인 주격과 목적격, 즉 ‘I(나)’와 ‘me(나를)’를 상징한다. 심리학은 기억된 자아를 목적격으로, 다시 말해 대상의 위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하면, 기억된 자아는 기억하는 자아인 I(나)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객관화된 자아들의 집합체로 다뤄진다. 이제 기억하는 자아와 기억된 자아 사이의 분리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 구분이 결여된 자아 이론을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기억된 자아가 엄격하게 목적격으로, 엄격하게 대상으로 다뤄질 수는 없다고 믿는다. 즉, 우리가 아무리 주체와 대상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주관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객관화하려는 것에 스며든다. 초상화, 조각, 혹은 사진으로부터 도출된 자아의 모든 모델은 하나의 이미지가 진정한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기억된 자아는 결코 분석이 가능한 안정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것으로 고정될 수 없다. 주관성은 항상 그것에 스며들어, 자아에 대한 어떠한 순수하게 객관적인 설명도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든다.

해설

[논증 구조]

기억된 자아: 심리학에서 목적격(대상)으로 환원 → 기억하는 자아와 기억된 자아의 분리가 근본적으로 보임 [통념] → 기억된 자아는 엄격하게 대상으로 다뤄질 수 없음 [반박] → 주관성이 객관화하려는 대상에 스며들(빈칸) [주장] → 자아에 대한 순수한 객관적 설명은 근본적으로 불완전 [결론]

[정답 논리]

문법은 자아를 주격(I)과 목적격(me)으로 구분하며, 심리학은 기억된 자아를 기억하는 자아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대상으로 환원하려 한다. 기억하는 자아와 기억된 자아의 분리가 근본적으로 보이지만, 기억된 자아는 초상화나 사진처럼 진정한 대상으로 고정될 수 없으며 주관성은 항상 그것에 스며든다. 주체와 대상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 할수록 주관성은 우리가 객관화하려는 것에 스며들기(subjectivity always leaks into it) 때문에, 빈칸에는 ① ‘우리가 객관화하려는 것에 스며든다’가 적절하다.

[오답 논리]

- ② 객관성의 끌어당김 아래 희미해지다: 지문은 주관성이 아무리 명확한 선을 그으려 해도 그 경계를 넘어 스며든다고 했으므로, 주관성이 약해진다는 것은 논지와 정반대.
- ③ 대상의 역할을 제거하다: 지문은 주관성이 객관화하려는 대상에 스며든다고 했을 뿐, 대상의 역할 자체가 제거된다는 것은 지문 미연급.
- ④ 우리가 회상하려는 자아를 명확하게 하다: 지문은 기억된 자아가 안정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것으로 고정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자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논지와 정반대.
- ⑤ 자아 내부의 분열을 유지하다: 지문은 주관성이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넘어 스며든다고 했으므로, 자아 내부의 분열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문이 다루는 주체-대상 간 경계 문제와 무관.

어휘

assume 상정하다, 가정하다	mode 양식
reduce 환원하다	objectify 객관화하다
stand apart from ~와 거리를 두다	division 분리
conceive 구상하다	lack 결여되다
subjectivity 주관성	subject 주체, 과목
derived from ~로부터 도출된	portraiture 초상화
sculpture 조각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genuine 진정한	self-contained 자기 완결적인
susceptible to ~이 가능한, ~에 취약한	
leak into ~로 스며들다	account 설명, 계좌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incomplete 불완전한
fade 희미해지다	clarify 명료하게 하다
maintain 유지하다	split 분열, 분리

35

정답 ③

해석

일부 사람들은 언어에서의 의미가 전적으로 저자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단어들은 정확히 저자가 의도한 바를 뜻한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언어적 의미의 유일한 원천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사적인 언어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소통이 언어의 본질이며, 소통은 공유된 언어적 관습과 규칙에 의존한다. (화자들은 문장을 형성할 때 일반적으로 관습적인 문법 패턴을 따른다.) 어떤 개인도 단순히 고립된 채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의도한 의미들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회적 규칙과 관습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사적인 생각이 우리가 언어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작동시키게 될 단어들에 대한 다른 모든 의미와 타협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설

이 글의 전반부는 언어의 의미가 전적으로 저자로부터 나온다는 관점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글의 흐름은 언어의 의미가 개인이 아닌 공유된 사회적 관습과 규칙에 기반한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된다. ③을 제외한 ①②④⑤는 모두 이 흐름 위에 있지만, ③은 화자들이 문장을 형성할 때 관습적인 문법 패턴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언어 의미의 원천이 누구인가라는 글의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을 제거하면 ②에서 소통이 공유된 관습에 의존한다는 내용이 ④의 개인은 고립된 채로 의미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어휘

entirely 전적으로	intend 의도하다
express 표현하다	flaw 결함
linguistic 언어의	convention 관습
code 규칙, 암호	isolation 고립
invent 만들어내다	negotiate 타협하다, 협상하다
inevitably 필연적으로, 반드시	bring into play 작동시키다

36

정답 ⑤

해석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티켓이 그것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며, 그들이야말로 정확히 티켓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자유 시장이 작동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누가 셰익스피어 공연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C) 압표 거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줄 서기는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차별한다”라고 불평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차별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만 그러할 뿐이다. (B) 시장이 지불할 능력과 의사에 기반하여 재화를 배분하는 것처럼, 줄 서기는 기다릴 능력과 의사에 기반하여 그렇게 한다. 어떤 재화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기다릴 의사보다 그 가치를 더 잘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줄 서기보다 시장을 선호하는 집단적 복지 주장은 매우 조건부적이다. (A) 때때로 시장이 재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줄 서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시장과 줄 서기 중 어느 쪽이 이 일을 더 잘하는가는 실증적인 문제이지, 추상적인 경제적 추론으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설

[정답 논리]

자유 시장이 돈을 기준으로 티켓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시장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차별하듯 줄 서기 역시 여가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차별할 뿐이라는 내용의 (C)가 와야 한다. (C)의 마지막에 시장과 줄 서기가 똑같은 의미에서만 차별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지불 의사와 기다릴 의사 중 어느 쪽이 가치를 더 잘 측정하는지 가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B)가 그 뒤에 오고, (B)의 마지막에 집단적 복지 주장이 매우 조건부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실증적 문제이지 추상적인 경제적 추론으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A)가 그 뒤에 이어져야 자연스럽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오답 논리]

①: (A)의 첫 문장 “Sometimes ~; other times, ~”는 시장과 줄 서기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재화를 배분하는지 이미 설명된 이후에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주어진 글은 시장의 논리만 제시하고 줄 서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A)가 주어진 글 바로 다음에 오는 ①은 탈락한다.

②③: (B)의 첫 문장은 시장과 줄 서기를 지불 능력·의사 대 기다릴 능력·의사로 대칭화하는 문장인데, 이 대칭화는 (C)에서 시장과 줄 서기의 차별이 동등하다는 점을 제시한 이후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B)가 (C) 앞에 오는 ②와 ③은 탈락한다.

④: (C)의 마지막은 시장과 줄 서기가 똑같은 의미에서만 차별한다는 내용인데, (A)의 첫 문장은 이 대칭 관계를 전제로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실증적 문제’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B)에서 지불 의사와 기다릴 의사 중 어느 쪽이 가치를 더 잘 측정하는지 가정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A)의 결론이 성립한다. 따라서 (C) 바로 뒤에 (A)가 오는 ④는 탈락한다.

어휘

advocate 옹호자	precisely 정확히
performance 공연	complain 불평하다
queuing 줄 서기	discriminate 차별하다
in favor of ~에게 유리하게	allocate 배분하다
willingness 의사, 기꺼이 하는 마음	measure 기준, 척도
collective 집단적인	welfare 복지
empirical 실증적인	resolve 해결하다
in advance 사전에	abstract 추상적인
reasoning 추론	

37

정답 ④

해석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만 꽃을 피우는 수종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개화의 해로 인해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이들이 가진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미 다른 과업을 위해 배정되어 있지만, 막대한 수의 씨앗을 생산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명령은 이러한 자원의 근본적인 우선순위 재편을 강제한다. (C) 이러한 양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꽃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서 그에 상응하는 수의 잎들이 자신의 자리를 비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잎들이 시들어 떨어지면, 나무들은 유난히 앙상해 보이는데, 이는 산림 상태 보고서가 나무의 캐노피를 가려한 상태로 처해 있다고 기술하게 만든다. (A) 이것이 숲을 병든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숲은 병든 것이 아니라 취약해진 것이다. 나무들은 엄청난 양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 남은 에너지 비축분을 모두 사용하지만, 잎이 줄어든 탓에 평소보다 더 적은 당분을 생산하게 된다. (B) 게다가, 생산량의 대부분이 씨앗 속 지방과 전분으로 전환되면서, 나무들의 일상적인 필요와 겨울 저장분을 위해 남겨지는 것이 거의 없다. 질병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비축분은 말할 것도 없다.

해설

[정답 논리]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만 꽃을 피우는 수종은 대규모 개화로 인해 자원의 근본적인 우선순위 재편이 강제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주어진 글의 우선순위 재편(reprioritization)을 Such a pattern으로 받으면서 꽃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잎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를 비운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한다. (C)의 마지막에 잎이 많이 떨어져서 캐노피가 가려한 상태로 묘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A)의 this가 이 내용을 받아 숲은 병든 것이 아니라 취약해진 것이라는 내용의 (A)가 그 뒤에 오고, (A)의 마지막에 당분 생산 감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줄어든 생산량마저 대부분이 씨앗 속 지방과 전분으로 전환되어 일상적 필요와 질병 방어를 위한 비축분조차 남지 않는다는 내용의 (B)가 그 뒤에 이어져야 자연스럽게.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C)-(A)-(B)’이다.

[오답 논리]

①: (A)의 첫 문장은 this makes the forest appear sick으로 시작하는데, 주어진 글에는 reprioritization이 등장할 뿐, 외관상의 묘사나 느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this가 받을 시각적 이상 징후에 관한 선행 내용이 없으므로, 주어진 글 바로 뒤에 (A)가 오는 ①은 탈락한다.

②, ③: (B)의 Furthermore는 앞서 제시된 내용에 방향이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Furthermore 뒤의 내용이 부정적 내용이므로 그 앞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하는데, 주어진 글은 우선순위 재편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구체적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어진 글 바로 뒤에 (B)가 오는 ②와 ③은 탈락한다.

⑤: (C)의 마지막은 나무의 캐노피가 가려한 상태로 묘사된다는 외관상의 묘사로 끝난다. 그런데 (B)의 Furthermore는 앞서 제시된 구체적인 에너지 손실 내용에 덧붙여 추가적인 손실을 제시하는 표현인데, (C) 어디에도 에너지나 생산량 손실에 관한 서술이 없다. 따라서 (C) 바로 뒤에 (B)가 오는 ⑤는 탈락한다.

어휘

disrupt 혼란에 빠뜨리다	designate 배정하다, 지정하다
imperative 명령, 급선무	yield 생산하다; 생산량
compel 강제하다, 자아내다	radical 근본적인, 급진적인
reprioritization 우선순위 재편	corresponding 상응하는
vacate 비우다	post 자리, 직무
shrivel 시들다, 오그라들다	prompt ~하게 만들다, 유도하다
describe 기술하다, 묘사하다	
canopy 캐노피(나무가지들이 지붕처럼 우거진 층)	
pitiful 가련한, 불쌍한	vulnerable 취약한
reserve 비축분; 보호구역	blossom 꽃, 개화
majority 대부분	output 생산량, 출력
convert 전환하다	starch 전분, 녹말
to say nothing of ~은 말할 것도 없다	
intend 의도하다	

38

정답 ④

해석

열대 산호초는 따뜻함을 필요로 하지만, 수온이 너무 높으면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산호초를 형성하는 산호들이 이중적 삶을 산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동물인 각각의 개별 산호 개체는 동시에 zooxanthellae로 알려진 미세한 식물들의 숙주이기도 하다. zooxanthellae는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산호 개체는 이 탄수화물을 수확한다. 수온이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그 온도는 위치와 종에 따라 다르다—산호와 그들의 미세한 파트너 사이의 공생 관계는 무너진다. 산호의 오랜 세입자들이 위험한 농도의 활성 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하고, 숙주들은 필사적으로, 그리고 종종 자멸적으로 그것들의 근원을 내쫓음으로써 반응한다. 그 붕괴는 눈에 보이는데, 산호는 한때 그들의 파트너들이 제공했던 색소를 잃고, 남은 것은 지금 산호 백화로 알려지게 된 현상이다. 이 상태에서 산호는 성장을 멈추고, 피해가 충분히 심각하다면 죽는다.

해설

[정답 논리]

주어진 문장은 수온 상승으로 공생 관계가 무너지는 구체적 메커니즘, 즉 세입자들이 활성 산소를 생성하고 숙주들이 그 근원을 내쫓는다는 내용이다. ④번 자리 앞 문장은 ‘공생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붕괴의 선언이고, ④번 자리 뒤 문장은 그 붕괴가 눈에 보이며 그 결과가 산호 백화 현상이라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breaks down → The breakdown is visible’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시문 없이는 공생 관계가 어떻게 붕괴되는지의 메커니즘이 빠진 채 결과만 서술되는 논리적 공백이 발생하며, 산호가 한때 파트너들이 제공했던 색소를 잃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제시문이 붕괴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채워준 뒤에야 그 붕괴가 눈에 보이며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완성되므로, ④번 위치에 주어진 문장이 와야 적절하다.

[오답 논리]

①: ①번 자리 앞 문장은 ‘산호초를 형성하는 산호들이 이중적 삶을 산다’라는 일반적 진술이고, ①번 자리 뒤 문장은 zooxanthellae의 숙주 관계를 처음 소개하는 문장이다. 제시문의 ‘오랜 세입자들(longtime tenants)’은 zooxanthellae를 지칭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zooxanthellae가 아직 소개되지 않아 ‘오랜 세입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독자에게 불명확하므로 ①번 자리는 탈락한다.

②: ②번 자리 뒤 문장은 zooxanthellae가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산호 개체가 이를 수확한다는 정상적 공생 관계를 서술한다. 제시문은 세입자들이 위험한 활성 산소를 생성하고 숙주가 그것을 내쫓는다는 붕괴 상황을 서술하는데, 정상적 공생 관계가 서술되는 중간에 붕괴 메커니즘이 삽입되면 앞뒤 문장의 내용이 충돌하므로 ②번 자리는 탈락한다.

③: ③번 자리 뒤 문장은 수온이 일정 지점을 넘으면 공생 관계가 무너진다는 붕괴의 선언이다. 제시문은 그 붕괴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서술하는데,

붕괴가 선언되기 이전에 그 메커니즘이 먼저 등장하면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역전되므로 ③번 자리는 탈락한다.

⑤: ⑤번 자리 앞 문장은 산호 백화 현상이라는 붕괴의 가시적 결과를 서술하고, ⑤번 자리 뒤 문장은 그 결과로 산호가 성장을 멈추고 죽는다는 최종 결말을 서술한다. 제시문이 이 자리에 오면 붕괴의 가시적 결과와 최종 결말 사이에 붕괴의 메커니즘이 삽입되는 구조가 되어, 결과가 먼저 서술된 뒤 원인이 뒤따르는 역순이 되므로 ⑤번 자리는 탈락한다.

어휘

coral 산호	tenant 세입자
concentration 농도, 집중	oxygen radical 활성 산소
host 숙주, 주인	desperately 필사적으로
self-defeatingly 자멸적으로	expel 내쫓다, 방출하다
tropical 열대의	reef 산호초, 암초
ensue 발생하다, 뒤이어 일어나다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make up 구성하다	colony 군락, 식민지
microscopic 미세한	carbohydrate 탄수화물
photosynthesis 광합성	harvest 수확하다
symbiotic 공생의	breakdown 붕괴, 고장
phenomenon 현상	bleaching 백화, 표백

39

정답 ④

해석

협상의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더 빈번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쟁점들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비 축소 조약은 많은 단계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것은 두 당사자가 한두 번의 큰 수(手)보다는 비교적 작은 수를 여러 번 두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만약 양측이 상대방의 부적절한 수가 다음 단계에서의 배신으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양측 모두 그 과정이 예상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더 확신할 수 있다. 물론, 군비 축소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실 각 측이 상대방이 이전 수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속임수를 감지하는 각 측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어떠한 간에, 많은 작은 수를 갖는 것이 단지 몇 번의 큰 수를 갖는 것에 비해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작용을 쪼개는 것은 현재의 수에서 속임수로 얻는 이익을 나중의 수에서 잠재적인 상호 협력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하게 만듦으로써 협력의 안정성을 증진한다.

해설

[정답 논리]

주어진 문장은 ‘군비 축소에서 각 측이 상대방이 이전 수(手)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①번 자리 앞부터 ④번 자리 앞까지는 ‘작은 수(手)들로 나누는 것이 상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협력에 대한 확신을 높인다’라는 일관된 흐름이 이어진다. 그런데 ④번 자리 뒤 문장은 ‘하지만(But)’으로 시작하면서 주어진 문장의 문제 제기를 양보절로 수용하면서도(‘확신의 정도가 어떠한 간에’) 작은 수들이 협력을 증진한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구조이므로, 그 앞에 문제 제기 역할을 하는 주어진 문장이 반드시 와야 한다. 따라서 ④번 위치에 주어진 문장이 와야 적절하다.

[오답 논리]

①: ①번 자리에 삽입되면 주어진 문장은 ‘각 측이 상대방의 이전 수를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①번 자리 뒤 문장은 ‘두 당사자가 작은 수를 여러 번 두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문제 제기 바로 뒤에 그 문제와 무관한 분할의 이점이 나오므로 흐름이 단절된다.

②: ②번 자리에 삽입되면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온다. 탐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뒤에 상호주의의 효과성이 바로 이어지면 논리적 연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③번 자리에 삽입되면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만약 양측이 상대방의 부적절한 수가 배신으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이라는 내용이 온다. 이 문장은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어진 문장이 바로 그 탐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므로 앞뒤 문장이 논리적으로 충돌한다.

⑤: ⑤번 자리에 삽입되면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 ‘많은 작은 수를 갖는 것이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다. 결론이 제시된 이후에 탐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면 논의가 역행하는

구조가 된다.

어휘

actually 실제로	previous 이전의
move 수, 조치	bargaining 협상
interaction 상호작용	break down 나누다, 분해하다
treaty 조약, 협정	relatively 비교적
reciprocity 상호주의, 호혜성	inadequate 부적절한
meet 대응하다, 만나다	confidence 확신, 자신감
process 과정	work out 잘 풀리다, 해결되다
anticipated 예상된	detect 감지하다, 발견하다
cheating 속임수, 부정행위	promote 증진하다, 촉진하다
cooperation 협력	decompose 쪼개다, 분해하다
stability 안정성	relative to ~에 비해, ~과 관련하여
potential 잠재적인	mutual 상호적인, 공동의

40

정답 ①

해석

Ricardo는 경제적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투쟁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고 연민이 경제적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고통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나태함이 지원받지 않고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총생산은 증가할 것이고, 전반적인 복지도 그것과 함께 향상될 것이었다. 투쟁과 불행은 그 자체로 환영받아야 할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 때문에 감내되었다.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다른 견해를 취했다. 그들에게 경제 사회는 사람들이 경쟁하기 위해 모이는 경기장이었고, 시장은 투쟁의 조건을 설정했다. 승자는 생존과 부로 보상받은 반면, 패자는 뒤처졌다. 경쟁은 강자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계발했다.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경쟁은 약자가 그들의 종류를 번식시키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투쟁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다. 투쟁이 더 무자비할수록, 그 효과는 더 유익했는데, 왜냐하면 투쟁이 더 철저하게 약자를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 Ricardo와 사회적 다윈주의자들 모두 시장 경쟁의 가혹함을 인정했지만, 전자는 집단적 복지에 대한 (A) 생산적 효과로 이를 정당화했던 반면, 후자는 무자비한 투쟁을 (B) 선별의 한 형태로 보아, 생존과 실패를 사회적 가치의 징표로 여겼다.

해설

[(A)에 대한 근거]

지문에서 ‘만약 나태함이 지원받지 않고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총생산은 증가할 것이고, 전반적인 복지도 그것과 함께 향상될 것이었다’라고 하였으므로, Ricardo에게 시장 경쟁의 가혹함은 집단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산적 효과를 위해 정당화된 것이다. 따라서 (A)에는 productive(생산적인) 계열의 어휘가 와야 한다.

[(B)에 대한 근거]

지문에서 ‘경쟁은 강자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계발했으며,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약자가 그들의 종류를 번식시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한 투쟁은 강자와 약자를 가려내는 선별의 기제였다. 따라서 (B)에는 sorting(선별) 계열의 어휘가 와야 한다.

[종합]

따라서 정답은 ① ‘productive(생산적인) - sorting(선별)’이다.

어휘

struggle 투쟁	argument 주장, 논거
compassion 연민, 동정심	interrupt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celebration 찬양, 축하	suffering 고통
idleness 나태함, 게으름	output 생산, 산출량
well-being 복지, 안녕	misfortune 불행
tolerate 감내하다, 용인하다	leave behind 뒤처지게 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reproduce 번식하다, 복제하다
benign 유익한, 상냥한	merciless 무자비한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remove 제거하다, 치우다
justify 정당화하다	collective 집단적인, 공동의
welfare 복지	ruthless 무자비한, 가혹한
treat 여기다, 대우하다	rivalry 경쟁, 대립

harsh 가혹한	marker 징표, 표지
corrective 교정적인	regulation 규제, 조절
utilitarian 공리주의적인	cooperation 협력
productive 생산적인	sorting 선별, 분류
adaptation 적응	

[41~42]

해설

스페인 내전은 현대적 의미에서 “취재된” 최초의 전쟁이었다. 전문 사진작가들이 군사 교전이 일어나는 전선과 폭격받는 마을들에서 활동했고, 그들의 사진은 신문과 잡지에서 즉시 볼 수 있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벌인 전쟁은 텔레비전 카메라가 매일 같이 촬영한 최초의 전쟁으로, 후방의 민간인들에게 화면을 통해 죽음과 파괴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안겨 주었다. 그 이후로, 전개되는 대로 촬영된 전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형 스크린 오락의 일상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

특정 분쟁이 멀리 떨어진 시청자들의 의식 속에 일시적인(→고정된) 자리를 차지하려면, 짧은 영상들이 반복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이해는 이제 주로 그러한 이미지들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 어딘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뉴스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은 사진으로 찍히거나 방송됨으로써 실재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이 기이한 반전을 가져온다. 실제로 겪는 대참사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의 재현처럼 보일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은 타워에서 탈출하거나 근처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그리고 “영화 같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수십 년간 큰 예산이 투입된 할리우드 재난 영화들 이후, “그것은 영화 같았다”는 생존자들이 대참사에 단기간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했던 더 오래된 방식인 “그것은 꿈 같았다”를 대체한 것처럼 보인다.

41

정답 ②

해설

[정답 논리]

스페인 내전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전쟁 이미지가 사진과 텔레비전을 통해 멀리 떨어진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이미지가 현실 인식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이 역전되어, 실제로 겪은 현실조차 이미지의 문법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9/11 당시 생존자들이 ‘영화 같았다’고 묘사한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지가 단순히 현실을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현실 인식의 틀 자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이미지가 현실의 장면이 될 때’이다.

[오답 논리]

- ① 생생한 장면들이 여론을 형성한다: 여론 형성은 지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방향임.
- ③ 인쇄에서 화면으로: 보도의 역사: 보도 매체의 역사적 변천은 이미지가 현실 인식의 틀이 된다는 논지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일 뿐, 논지가 아님.
- ④ 이미지가 먼 전쟁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미지의 전달 기능만을 다루므로 지문 후반부의 핵심 논지인 역전 현상을 포함하지 못하며, 전쟁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지문의 전체 논지를 반영하지 못함.
- ⑤ 재난 영화와 변화하는 생존의 언어: 재난 영화는 이미지가 현실 인식의 틀이 되었다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마지막 사례일 뿐이며, 재난 영화 자체가 생존의 언어 변화가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논지가 아님.

42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중반부까지 미디어가 전쟁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이 구간의 핵심은 ‘전쟁 이미지의 반복 노출이 원격 시청자의 의식 속에 전쟁을 각인시킨다’라는 것이다. (c) 문장 바로 앞의 routine과 ceaseless flow, (c) 문장 바로 뒤의 repeatedly diffused, 또 그 다음 문장의 “The understanding of war ~ is now shaped chiefly by such images.” 등의 단서들은 모두 ‘지속성·항구성’이라는 동일한 의미 방향을 가리키며 특정 갈등이 원격 시청자의 의식 속에 차지하는 자리가 지속적이고 고정된 것이어야 논리가 이어진다. 따라서 ③ temporary(일시적인)는

fixed(고정된), permanent(영구적인), lasting(지속적인) 등의 어휘로 교체되어야 한다.

어휘

civil war 내전	covered 취재된, 다루어진
front line 전선	bombardment 폭격
wage 벌이다, 수행하다	witness 목격하다
unfold 전개되다, 펼쳐지다	ingredient 구성 요소, 재료
ceaseless 끊임없는	conflict 분쟁, 갈등
gain 차지하다, 얻다	consciousness 의식
clip 영상, 동영상	diffuse 전파하다, 퍼뜨리다
broadcast 방송되다, 방송하다	reversal 반전, 역전
catastrophe 대참사, 재앙	representation 재현, 표현
describe 묘사하다, 기술하다	surreal 초현실적인
big-budget 큰 예산이 투입된	disaster 재난, 재앙
vivid 생생한, 선명한	shape 형성하다
public opinion 여론	frame 장면, 틀

[43~45]

해설

(A) Ethan은 도시에서 자랐고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다. 모든 야외 활동을 잘하는 그의 형 David가 생일을 맞아 그를 Pine Lake 공원에 데려갔다. Ethan은 신이 난 척하려 했지만, 그의 앞에서 바보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다. 입구에서 공원 관리인인 Green 씨가 낚시대 두 개를 건네주며 독 근처의 바위에 낚시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Ethan이 캐스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David가 말했다. “나는 호수 건너편 쪽에서 해볼게. 나 없이 네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야.” Ethan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격려받는다고보다 버려진 느낌이 더 들었다.

(D)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되지 않았다. Ethan의 캐스팅은 독 너무 가까이 떨어졌고, 한 번은 낚시바늘이 바위 아래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낚시대 손에서 심하게 휘 때까지 더 세게 당겼다. 근처에 있던 아이들 몇 명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Ethan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호수 건너편에서 David는 이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지만, 오지 않았다. Ethan은 David가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다. Ethan이 막 낚시대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Green 씨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B) 그가 말했다. “바위와 싸우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낚시줄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 다음, 그것을 옆으로 당기세요.” Ethan은 그 조언을 따랐고, 그러자 낚시줄이 빠져나왔다. Green 씨는 바위 너머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 그림자 안이 아니라, 그림자 너머로 던지세요.” 떠나기 전에 그가 말했다. “David가 저에게 근처에 있어 달라고 했어요. 공간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Ethan은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았고, David가 재빨리 자신의 낚시대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Ethan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낚시줄을 던졌다.

(C) 찌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Ethan은 낚시대를 단단히 잡고 천천히 은빛 송어를 끌어 올렸다. David가 돌아왔을 때, Ethan은 양손으로 물고기를 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 David가 빈 양동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너 보는 데 썼거든.” Ethan은 David가 자신(Ethan)의 실패를 예상해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Ethan이 스스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Ethan은 송어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자신이 물고기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느꼈다.

43

정답 ④

해설

(A)에서 Ethan이 캐스팅 연습을 마친 뒤 David가 호수 건너편으로 자리를 피하고, Ethan이 버려진 느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아무것도 잘되지 않고 낚시바늘이 바위에 걸리는 등 고전하던 내용의 (D)가 그 뒤에 와야 한다. (D)의 마지막에 Mr. Green이 Ethan에게 다가왔으므로, Mr. Green이 바위에 걸린 낚시줄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림자 너머로 캐스팅하라는 조언을 건네며, David가 부탁해서 근처에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의 (B)가 그 뒤에 온 다음, (B)의 마지막에 Ethan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낚시줄을 던졌으므로, 찌가 사라지며 송어를 낚아 올리고 돌아온 David와 함께 형의 진심을 깨닫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44

정답 ⑤

해설

(a) him은 Ethan이 바보처럼 보일까 두려워한 대상으로 David를 가리킨다.
 (b) He는 Mr. Green이 전달한 말의 원래 화자인 David를 가리킨다. (c) his는 빈 양동이를 보여준 David를 가리킨다. (d) he는 실패를 예상했다고 오해받은 대상으로 David를 가리킨다. 반면 (e) him은 David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대상으로 Ethan을 가리킨다. 따라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45

정답 ⑤

해설

(D)에서 Green 씨가 Ethan의 뒤에서 먼저 다가왔다고 했으므로, Ethan이 Green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어휘

fishing rod 낚싯대

casting 캐스팅, 낚싯줄 던지기

slack 느슨함, 여유

float (낚시)찌

trout 송어

be about to 막 ~하려 하다

bank 뚝, 강변

abandon 내버려두다

patch 구역, 부분